

남원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노릇 '톡톡'

지류형 상품권 550억원 완판예정
시민 이용 안정적체도로 자리잡아

남원=박영규 기자

남원시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남원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원시는 15일,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지류형 남원사랑상품권을 550억원 발행했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계획보다 빠른 시기에 완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현재 발행액 550억원 중 10% 할인판매액은 553억원으로 남은 금액은 17억원이다.

시는 지류 상품권의 경우 완판 시에는 할인 판매를 종료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12월



말까지 10% 할인판매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화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10% 할인과 더불어 3,600여

곳이 넘는 가맹점, 지류·모바일·카드 형태의 다양한 결제방식을 확보한 것이 시민과 상점의 사용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현재 판매대행점 68개소 중 46개소를 제외한 22개 판매대행점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전용앱(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활용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은 판매대행점 은행을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은 농협은행에 이어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한까지 더해지면 시 포인트 적립과 편의에 맞춰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아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행 3년째인 남원사랑상품권은 현재 거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안정적인 체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금융·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내수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 익산병원, 한가족뇌혈관질환후원회 고비용 보건의료복지 지원 강화 협약

익산시가 고비용 분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익산병원, 한가족뇌혈관질환후원회와 지난 15일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뇌혈관질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만·관·이 고비용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지원 절실하다는 공감에서 이뤄져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익산시와 익산병원은 고가의료비로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가족뇌혈관질환후원회에서 선뜻 기부 의사를 밝혀 협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가족뇌혈관질환후원회는 저소득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시는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해 익산병원에 추천 연계하며, 익산병원은 검사 및 진료, 포괄병동 이용 등 대상 시민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 우리 지역은 의료복지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익산병원과 뇌혈관질환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규창 기자

남원, 신중년일자리사업 공모 최다 선정 4개분야 20개 사업, 예산 9억8,000만원 확보

남원시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올해 4개 분야 20개 사업이 선정돼 국·도·비 9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북에서 최다 선정으로, 시는 내년 1월중에 신중년 66명을 모집해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퇴직한 신중년(5060세대)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시민과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신중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직 신중년들이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만50세 이상 만70세 미만의 미취업 자이면서 해당 업무관련분야 3~5년 이상 경력이나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보수는 시급으로 1만1,000원~1만6,000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인정받는다. /박영규 기자

익산시소상공인, 위기청소년 돌봄망 마련

익산 소상공인들이 지역 내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익산 소상공인 업체들이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 업체로는 익산보물창고에서 미혼부 청소년 가정에 생필품 지원과 지난 8월부터 매일 저소득층 5가정에 돼지갈비 찜 세트 후원을 해왔다.

콩날부대에서 지난달부터 매일 3회씩 5가정에 수제 반찬 및 국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의 식사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당고베이커리에서 지난달부터 매일 1명의 청소년에게 수제케이크 및 상품권을 후원하고 있다.



익산사진관 스튜디오 나인에서 10월부터 청소년들에게 증명사진 촬영권을 후원하며 훈훈한 나눔을 선사하고 있다.

이같이 익산 소상공인들이 주도하는 후원들은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용하는 위기청소년들의 경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소년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임규창 기자

무주군, 농업인 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무주군이 하반기 농업인 안전보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농작업 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은 살천면 기곡마을을 시작으로 다음달 18일 안성면 외당마을까지 6개 마을 농업인 180여 명을 대상으로 2시간 씩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 한다. 교육은 원광대학교 오경태 교수 강사로 참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근골격계 질환,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보호구 시연 및 실습 과정을 병행 한다.

앞서 군은 지난 6월, 6개 읍면 마을에서 3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농업지원과 생활지원팀 민선희 팀장은 "농업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다"며 "각종 질환 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열 기자

익산시, 위드코로나 사전준비... 거리두기 2주 연장

일상회복전환 '징검다리' 방역 체제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으로 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 관리에 나선다.

시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 사전 준비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조와 조정 사항 발표에 따라 지난 17일 자로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18일부로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일상회복 전환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적 조치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접종 완료자 중심 인센티브 강화 차원과 지나친 방역 긴장감 이완으로 인한 급격한 유행 확산 초래 대응 방역관리 강화 양면을 고려 시행한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했으나 예방접종 완

료자 6명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기존 3단계에서 22사·의일 05시 운영 제한을 시행했으나 조정 시행에 따라 24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완화되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에서 운영시간 제한 해제로 시행된다. 또한 결혼식장의 경우 현상의 예외사항을 고려,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 시행한다. 3단계의 경우 접종완료자를 201명 추가해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그동안 적용했던 샤워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종교시설은 기존 3단계 수용인원의 20%고 접종완료자는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제외하는 방역조치를 현행 유지한다. /고윤영 기자

남원시, 한복문화주간 '화인날개' 이벤트

남원시 한복체험관 화인당에서 특별한 무료 이벤트가 진행된다.

남원시는 2021 한복문화 가을 주간을 맞아 한복의 생활 및 대중화를 위해 화인당에서 '화인날개'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인날개는 시가 일상복에 그냥 걸치기만 해도 멋스럽게 변신할 수 있도록 제작한 패자 한복이다.

참가희망자는 인스타그램에 #남원화인당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 및 간단한 후기를 올리면 화인날개를 1시간 동안 무료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은 31일까지 진행된다. 1일 50명



만 한정해 참가할 수 있다. 시는 또 이벤트와는 별개로 한복문화주간(15일~11월까지) 기간에 화인날개를 입고 광한루원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해준다. /박영규 기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새전북신문을 읽으면 전북이 보입니다.
새전북이 쓰면 대한민국이 읽습니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과 함께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희망이 커집니다.

G.C.